

돈먹는 하마 “밀라노 프로젝트” 중단

감사원,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패션밸리 조성 ... 산자부 명예 “똥칠”

대구의 섬유산업진흥사업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지 않게 추진돼 국민의 세금만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월31일 대구시가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일명 <밀라노 프로젝트>의 핵심인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산업자원부장관과 대구시장은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결정은 사실상 패션어패럴밸리 사업중단을 뜻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 및 대구시 관계자들의 책임 논란과 함께 대구지역 경제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발표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대구시는 고급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패션어패럴밸리(봉무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패션어패럴밸리 조성과정에서 “패션보다는 섬유와 직물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제안도 무시했다.

더구나 공장과 도매상 등이 들어설 산업단지 수요가 1874평으로 조사됐으나 대구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9만9671평으로 확장했다.

재원조달에서도 총 사업비 3007억원 중 부지 매입과 도로 확장 등에 투입된 국비 700억원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했던 2307억원 중 단 한푼도 유치하지 못했다.

대구지역 섬유산업 진흥을 위해 1999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국고와 지방비 등에서 신소재개발 연구비 지원,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립 등에 4684억원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성과는 나빠졌다.

1999년 대구시의 섬유 생산은 4조9890억원, 수출은 15억8000만달러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생산 4조3810억원, 수출 12억5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화학저널 2005/04/04>